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3일 목요일 음 5월 11일 (3물)

기상정보

맑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8℃, 낮 최고기온은 23~25℃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0%
0%	성 산	10%
0%	고 산	10%
0%	서귀포	10%

	해뜸 05:23 / 해짐 19:44	달뜸 15:33 / 달짐 02:35
물때	만조 07:29 / 20:31	간조 01:31 / 14:06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9/24℃
모레	구름 많음	19/24℃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매우높음

월드뉴스

미국, 타국 광물개발 지원 계획

'중국 의존도 줄이려'

중국 희토류 광산.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주요 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타국의 리튬·구리·코발트 등 광물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광물자원은 휴대전화·전자기기·배터리·전투기 등 광범위한 산업에 쓰이는 만큼 안정적 공급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일명 '에너지 자원 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한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면서 "어느 한 공급원에 의존하면 공급망 붕괴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계했다.

미국은 타국이 광물자원을 발굴·개발할 수 있도록 채굴 전문기술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에 대해 조언해줄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 관리계획' 보고서는 "핵심 에너지 광물 수요는 2050년까지 거의 1000%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통해 전세계 주요 광물자원 공급이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단상

김 완 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지난달 운 좋게 지인들과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황순원 문학촌에 가게 되었다. 양평의 해장국집과 매기 매운탕집 만큼이나 유명한 곳이 소나기 작가의 문학관이다. 매표소와 비를 피하던 수숫대 체험코너를 돌고, 전시관에 들어서자 작가의 창작물을 소재로 한 여러 코너들이 차려져 있었다. 평소 필자는 여행할 때마다 새에 관한 소품이나 이야기를 유심히 살피는데, 황순원은 학, 기러기, 독수리 등 새의 습성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남겼다. 순간 발길을 멈추게 한 곳이 있었다. 단편소설 '학' 전시코너에서 주인공 덕재와 성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읽어 본 적이 없었다가, 여행 후에야 그 소설을 접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두 주인공이 겪게 되는 이념의 갈등을 동심과 우정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 찡하다.

지금에야 어딜 가든 금방 찾아가지만, 황순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 작가는 작품 속에 단 두 줄을 쓰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메모해서 작품 속에 정확히 남겼다. 한국전쟁 전에 나비 연구차 제주도에 오신 석주명 선생도 단 한 줄의 논문을 쓰기 위해 나비 표본 3만 마리를 만진 것으로 유명하다. 서귀포시 앞바다를 배경으로 한 황순원의 '비바리' 작품 또한 작가의 세심한 정보력이 잘 드러나 있다. 육지 남자 '준이'와 제주 잠녀 '비바리' 의 만남에서 이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개하면서, 당시 제주 4·3으로 인한 제주사람들의 고난을 비롯하여 잠녀의 자맥질 모습과 해산물 종류, 단추 공장, 제주어 쓰임새, 산남과 산북의 물 문제 등 제주 출신이 아닌 작가라서 더 많이 찾아낸 제주 정황을 볼 수 있다.

총을 소재로 '학'과 '비바리'를 통해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르며 겪게 된 작가의 고통과 희망을 짐작케 한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끼리 전쟁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분열적 삶을 정당화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이었다.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총을 들었지만, 작가는 펜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요즘 섬휘파람새가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때마침 제주를 찾은 두견이도 피를 토하듯 울어댄다. 여름철새인 두견이는 자기가 둥지를 틀지 않고 섬휘파람새 둥지에 의지한다. 그러니 두견이는 자기 새끼를 위해 여러 섬휘파람새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알아내야 한다. 한 둥지의 한 개의 알을 탁란해야 하는 두견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달플까. 그렇다고 섬휘파람새는 편안할까. 하지만 둘은 경쟁을 하되 전쟁을 거부했다. 자연은 그래서 신비롭고 평화로운 것이다.

불행히도 국가기념일인 4·3과 5·18 그리고 6·25 모두 총으로 얼룩진 비극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주의 곳곳을 찾아 잃어버린 흔적과 사라져 버릴지 모를 제주 사람들의 기억과 자연을 꼼꼼히 기록해야 할 듯싶다. 진솔함이야말로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에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잘못된 정보가 그릇된 의식으로 안착해서 제주사람과 고향이 다른 사람들 간에 생길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6월의 두견이가 양 날개는 펴고 날면서까지 우는 까닭을 생각해본다. 비를 맞으면서까지.

열린마당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해 주세요

전 연 희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제주에는 '우리 동네 재활용도움센터'가 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동네 주민들이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도우미와 품목별 배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는 현재 도내 19개소(제주시 8개, 서귀포시 11개)가 설치돼 있다. 간혹 다른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 동네의 재활용도움센터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 볼 때마다 '이 동네는 쓰레기 관리가 잘 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아라동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했던 기억 때문이다. 예전에 자취하면서 나온 쓰레기들을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잘 분리해 아라동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하러 간 적이 있었다. 센터에 계시는 도우미분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해서 갔지만 도우미분의 기준은 내 생각보다 더 엄격했다. 컵라면 용기를 버릴 때 용기를 세척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안 되고,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잘못 분리되지 않도록 세세히 검사하신 뒤에야 쓰레기 배출을 마칠 수 있었다. 비록 그냥 쓰레기장에 버릴 때 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쓰레기 배출의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오면 '무언가 잘못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문 같은 것도 들지 않고 항상 뿌듯한 마음이 들어 좋았다.

하지만 현재 제주의 재활용도움센터의 수는 그냥 쓰레기장의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런 곳들은 여지없이 쓰레기 배출의 상태가 심각하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기본이며 음식물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봉지에 넣어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제주의 이러한 쓰레기 배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재활용도움센터들의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

청렴의 물결이 일렁이는 제주의 여름

김 무 원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

제주의 여름은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르다. 드넓은 청보리의 초록이 우아하게 춤추고, 쪽빛 바다가 기분 좋게 그려내는 파도는 새하얗게 부서진다.

이처럼 하루하루 여름이 물들어가는 제주에 또 하나 맑은 물결이 일렁인다. '도민과 함께, 깨끗하게·투명하게·청렴하게!'를 주제로 6월 19일~6월 21일 개최되는 '2019 청렴문화제'가 바로 그것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단체가 중심이 돼 진행하는 이번 문화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극대화에 방점을 둔다.

청렴전시관 운영, 청렴특강, 청렴영화·연극 상영, 청렴문화존, 청렴기행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청 일원 등에서 진행되는데, 특히 청렴특강(6월 19일)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제주시청 주변에서 개최되는 청렴문화존(6월 22일) 행사에서는 청렴머그컵·에코백 만들기, 캘리그라피 노트·청렴화분 증정, 페이스페인팅, 문화공연 등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기관·단체가 다양하게 준비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제주는 올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3년 연속 1등급 달성과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 표창 등의 성과로 청렴제주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렴'이라는 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즐겁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가득 펼쳐지는 '2019 청렴문화제'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랜드 보청기

호국보훈의 달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최대 60% 파격 할인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고개숙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회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의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